때아닌 모기 전쟁

어제 11월 역대 낮최고 27.1도

초여름 날씨 개체수 크게 증가

입동(8일)을 닷새 앞둔 3일 광주 낮 기온이 역대 11월 최고인 섭씨 27.1도를 기록하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시민들이 때아닌 모기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낮 기온이 대폭 오른데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하천변이나 하수구 등에서 모기가 계속 번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낮 최고기온은 1일 24.6도, 2일 21.7도 등으로, 평년 최고기온 17.5~18.0도에 비해 4.2~9.6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2.5~17.1도에 비해서는 무려 15도나 높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내주초 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 철 잃은 모기, 하루살이 등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밤시간대 실내의 경우 모기개체수가 여름과 비슷해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슈퍼, 약국 등의 모기약 판매가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모(45·동구 운림동)씨는 "요즘 모기 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다"라며 "운동하러 광주천변에 나갔는데 거기에서는 하루살이 때문에 무척 불편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관계자는 "모기가 따뜻한 오후 시간대에는 실외에서, 밤 시간대에는 실내에 들어와 서식하는 등 생존력이 크게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모기 등이 극성을 부리자 각 자치구가 방역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82돌 맞은 광주학생독립운동

제82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일고에서 열린 가운데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의장 등이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념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왼쪽) 광주자연과학고 관계자와 동문 등은 이날 오후 선배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내에 세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제막식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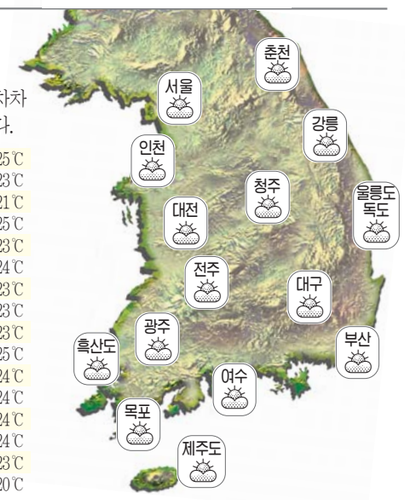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6분 해짐 17시 36분 달뜸 13시 58분 달짐 00시 45분

밤늦게 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늦게 비가 오겠다.

광 주	구름많음	15/25℃
목 포	구름많음	16/23℃
여 수	구름많음	17/21℃
나 주	구름많음	4/25℃
완 도	구름많음	15/23℃
구 례	구름많음	12/24℃
강 진	구름많음	14/23℃
해 남	구름많음	14/23℃
장 흥	구름많음	14/23℃
순 천	구름많음	15/25℃
영 광	구름많음	15/24℃
진 도	구름많음	14/24℃
전 주	구름많음	14/24℃
군 산	구름많음	14/24℃
남 원	구름많음	12/23℃
흑산도	구름많음	16/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8:48 21:37	02:18 14:26
여수	04:25 17:07	10:14 23:2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토)	6(일)	7(월)	8(화)	9(수)	10(목)
날 씨						
최저/최고	16/22	15/19	12/18	12/18	13/18	13/17

법원 "황우석 前교수 파면처분 부당"

1심 깨고 원고 승소 판결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장애인 아동·여성 성폭력 방지

광주경찰 '112신고핫라인' 설치

광주경찰청이 장애인 아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 방지를 위해 112 신고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3일 "2012년 예산에 반영해 긴급상황 시 휴대용 비상벨(위치정보 단말기)을 누르면 112신고센터로 신고자 위치정보가 문자·음성·사진 전송돼 인근 순찰차가 신속 출동·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보호시설 내 CC(폐쇄회로)TV 및 비상벨 등 방범 시설 설치, 장애인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수사·상담·진료 통합지원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지역 내 46개 시설 중 CCTV는 12개소(21%), 비상벨은 6개소(13%)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청이 지난달 특수학교 5곳, 장애인·아동 보호시설 41곳의 남성 종사자 249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전과자는 없었다.

점검 당시 인화학교 남성종사자 13명 중 2명은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지만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 경과로 형을 받지 않아 성범죄 경력자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및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동 한우 농가

구제역 의심 신고

경북 안동의 한우 사육농장 1곳에서 한우 1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경북도는 "안동 서후면 소재 모 농장에서 기르는 한우 60여마리 중 1마리가 식욕부진과 침흘림, 경련 등의 증상을 보여 3일 오전 농장주가 안동시에 구제역 의심가축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농장주가 신고한 구제역 의심가축은 생후 16개월된 한우이며 지난 8월 상순 무안에서 입식됐고 예방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상태로 나타났다.

이 의심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는 오는 4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산강 상류 오·폐수 무단방류 업소 10곳 적발

영산강 중·상류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영산강 주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75개소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 등을 무단 방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청은 적발업소 4개소는 고발조치하고 6개소는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미신고 설치·운영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방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이었다.

담양 모 견사는 75㎥ 상당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인근 논과 농수로로 무단 방출했고, 담양 모 축사는 3년 전에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가축분뇨를 인근 밭에 무단 배출했다. 또 화순 모 요양병원과 나주 모 주식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시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